



현장 창작 오페라 '순이 삼촌'

음악에 방점 찍고 제주4·3 알리는 무대화 작업을

초연 10개월여 만에 재공연
1막 성악가 4명 앙상블 빛나
아리아·합창 등 완성도 높여
‘광란의 아리아’ 기대 못 미쳐
이미지 과잉 자칫 상투성 불러

음악에 방점을 찍고 4·3 알리기에 집중한 순 없었을까. 10개월여 만에 다시 공연된 창작 오페라 ‘순이 삼촌’(원작 현기영, 대본 김수열, 예술총감독·연출 강해명)은 그같은 불만을 던졌다.

지난 17~18일 제주아트센터에서 두 차례 공연된 ‘순이 삼촌’은 제주시와 제주4·3평화재단이 공동 제작한 오페라로 출연진만 약 210명이다. 제작진은 공연을 앞두고 자식 잃은 순이 삼촌의 절규를 가사 없는 보컬리츠 형식으로 표현하는 ‘광란의 아리아’를 새로 선보이고 공연 시간을 줄이는 등 지난해 초연작을 보완했다고 알렸다.

이번 오페라의 메시지는 프롤로그의 테너 아리아 ‘그날의 기억’과 바로 이어지는 1막 ‘태사룬 땅을 밟다’



창작 오페라 ‘순이 삼촌’. 지난 17일 첫날 공연의 1막 장면이다.

에 대부분 녹아있다. 1978년 발표된 원작 소설 ‘순이 삼촌’처럼 4·3 시기 집단학살이 행해진 북촌 마을의 제삿집에 모인 이들이 30년 전 그날 인간의 언어론 도무지 말할 수 없는 폐죽음의 참극을 아리아와 중창, 합창으로 전한다.

첫날 현장에서 관람한 ‘순이 삼촌’의 1막에선 상수, 김수, 고모부, 큰아버지 역을 맡은 4명의 성악가가 같은 선율 속 다른 가사가 맞물리며 ‘역사는 우리에게’를 부르는 장면이 빛났

다. “폭도들이 일으킨 반란”, “통일을 위한 항쟁”, “무고한 희생”, “필요한 죽음” 등 4·3에 대한 각기 다른 시선은 그것이 “아직 끝나지 않은 역사”임을 일깨웠다. 상수 역의 김신규는 초연보다 깊어진 연기로 돌아왔고, 김수 양신국도 제주 성악가 발굴이라는 성과로 남게 됐다.

“죽어도 벌써 죽었을 사람”, ‘어진 아’, ‘이름없는 이의 노래’ 등 오페라는 4막에 걸쳐 최정훈 작곡의 인상적 음악들이 펼쳐졌다. ‘삼십 년 전

죽은 목숨’ 등 도립 제주합창단 덕에 그 울림이 커진 곡들도 있다. 이에 비해 2막에 배치된 ‘광란의 아리아’는 기대감에 못 미쳤다.

이와 함께 무대막이 걷히면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세트는 공을 들인 모습이었다. 혼령의 춤도 극의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반면 상수와 김수를 빼면 제삿집에 있던 서북청년단 출신 고모부 등이 과거 장면에선 등장하지 않는 점은 극의 입체감을 떨어뜨렸다. 극의 전개를 알려주는 필수 자막 외에 동영상, 내레이션은 더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휘어 퍼포먼스와 살풀이 춤도 다르지 않다. 까마귀, 돌담, 팽나무 등의 활용은 화산섬에서 벌어진 4·3을 상징하면서도 자칫 클리셰가 될 수 있다. 러닝타임 단축을 체감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다. 4·3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설명 등은 프로그램에 넣어도 될 일이다.

2021년 ‘순이 삼촌’은 경기아트센터와 공동 주최로 12월 30일 오후 7시 경기아트센터에서 수도권 관객들을 만난다. 2022년 9월엔 서울 세종문화회관 공연을 예정하고 있다.

전선희기자



창작 뮤지컬 ‘이중섭의 메모리’ 공연에 참여한 제주 출신 배우와 제작자. 왼쪽부터 배우 김재은, 작곡과 극본을 맡은 윤정인 대표, 배우 정유라.

“제주 배우 선발 뮤지컬 상설공연 기대”

‘이중섭의 …’ 제주 출신 3인
윤정인 대표 작곡·공동 극본
정유라·김재은 배우로 참여

배우들이 참여했다. 마사코를 연기한 정유라, 해녀 등으로 나온 김재은이다. 지난 17일 ‘이중섭의 메모리’ 2회차 공연 뒤 서귀포에당에서 만난 이들은 고향에서 이뤄지는 공연에 대한 설렘을 감추지 않았다.

윤정인 대표는 “서귀포는 이중섭이 가장 행복했던 한때를 보낸 곳”이라며 “화가는 가고 없지만 우리 곁에 작품으로 남아 영원히 기억되는 예술가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했다. 대구예술대 작곡과, 영남대학원 작곡과(석사)를 졸업한 윤 대표는 지난 20여 년 대구에서 활동하며 수십 편의 창작 뮤지컬 작곡, 음악감독 등으로 주목을 받았다. 2015년 서귀포에당에서 공연했던 ‘사랑꽃’은 DIMF 대상으로 중국, 일본 초청 무대도 잇따랐다. 고양부 삼성(三姓), 외돌개 등 제주 소재 작품을 구성 중이라는 윤 대표는 “앞으로 제주에서 ‘이중섭의 메모리’ 배우를 선발해 상설공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우 정유라는 극 중 마사코를 두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 싫지만 이중섭을 살려야 한다는 강한 의지로 떠나 보내는 인물”이라며 “마사코에게서 강인한 어머니상을 봤다”고 했다. 계명대 연극예술학과를 졸업했고 백서아티어의 ‘사랑꽃’, ‘패션 코레아’ 등에서 주연을 맡았던 정유라는 제주에서 배우를 꿈꾸고 있는 이들을 위해 “뮤지컬 워크숍 과정과 함께 공연 관람 기회가 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배우 김재은은 국제예술대 뮤지컬과에서 공부했고 앞서 제주시가 제작한 창작 뮤지컬 ‘만덕’에 출연했다. 김재은은 자신이 제주에서 뮤지컬 공연을 접하며 배우의 꿈을 키웠듯 “공연을 볼 기회가 늘어나면 더 친숙하게 뮤지컬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선희기자

4·3의 기억 DMZ다큐영화제 주목

개막작 ‘수프와 이데올로기’
재일 양영희 감독 대상 수상
강희진 감독은 프로젝트 선정

제주4·3의 기억을 안은 작품을 잇따라 선보였던 제1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한라일보 8월 23일자 8면)에서 재일 양영희 감독의 ‘수프

와 이데올로기’가 대상인 ‘한기러기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파주 등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된 제1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이하 DMZ Docs)는 지난 16일 폐막식을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시상식을 갖는 등 8일간의 영화제 일정을 마무리했다.

DMZ Docs 대상작인 ‘수프와 이데올로기’는 이번 영화제 개막작 뿐

아니라 국제경쟁 상영작으로 선정돼 영화제 기간 관객과 심사위원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국제경쟁 심사위원단은 이 영화에 대해 “재일조선인 가족사를 통해 한국의 현대사를 들춰내는 작품”이라며 “한 여성의 삶을 통해 한국사의 잊힌 비극을 복원해낸 연출력이 탁월하다”는 심사평을 전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4·3을 다룬 또 다른 작품도 주목을 끌었다. 단편경쟁 부문에 상영된 4·3 다큐멘터리에 니메이션 ‘메이 제주 데이(May

Jeu Day)’의 강희진 감독이 제작 지원금을 받는 ‘2021 DMZ인터스트리 최우수 프로젝트’ 5편 중 하나로 뽑혔다.

DMZ인터스트리는 DMZ Docs의 다큐멘터리 산업 프로그램으로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사업 체계화를 위해 실시됐다. 강희진 감독은 신진작가 부문에서 ‘펄롱펄롱’으로 최우수 프로젝트에 올랐다. 이 작품은 ‘메이 제주 데이’에 등장하는 한 생존자의 삶을 담은 장편으로 구성됐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일상 속 성차별’ 시화전에 담는다

제주시조시인협회 공모
40편 시화로 제작 전시

제주시조시인협회가 제주도청 제1별관 로비에서 성 역할에 대한 편견과

고정 관념을 들여다보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시들을 펼쳐놓는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으로 이달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제주도청 1청사 별관 로비에서 진행되는 시화전이다.

‘시를 통한 시인과 시민의 양성평등 만남’이란 주제를 단 이번 시화전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0여 편 중에서 시화로 제작한 강영임의 ‘호칭이 뭐 별거냐고?’, 김대봉의 ‘둥이 타령’, 김영숙의 ‘결구배추’, 문경선의 ‘낮달’, 오영호의 ‘연리목보다’, 장한라의 ‘중립 화장실’ 등 40편이 나온다. 그림은 제주만화작가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백금아 작가가 그렸다.

제주시조시인협회는 “막연하고 추상적이던 양성평등 시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며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제주시조시인협회는 시화전에 이어 10월 중에는 공모 선정 작품 전부를 모은 시집도 따로 묶어 낸다고 덧붙였다.

전선희기자



休

나 강 초대전

2021. 09. 08(수) ~ 10. 22(금)

관람시간 안내

평일 | Open 11:00
Close 18:00

주말 (±.日) | Open 11:00
Close 17:00

· 휴관 : 매주 월요일
· 문의 : 064-750-2543

제주시 서사로 154 한라일보 1F

Gallery IED